

碩士學位論文

근본적 생태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를 중심으로 -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J' shape. The left vertical stroke of the 'J' is composed of three wavy, flame-like shapes in blue, green, and grey. The right vertical stroke is a solid purple bar. In the center of the 'J', there is a small icon of an open book above the text 'JEJU' and '1952'. The entire logo is set against a background of a faint, circular watermark containing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nd '제주대학교' in Korean.

濟州大學校 大學院

哲學科

秦希鍾

2008年 12月

근본적 생태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尹龍澤

秦希鍾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秦希鍾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12月

A Critical Analysis of Radical Ecophilosophy
- Focusing on Deep Ecology, Social ecology,
and Ecofeminism -

Hee-Jong Jin

(Supervised by Professor Yong-Taek Y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8. 12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목적과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제 1 절 생태학의 등장	7
제 2 절 근본적 생태철학의 탄생	9
제 3 장 근본적 생태철학의 제 유형	13
제 1 절 심층생태주의	13
제 2 절 사회생태주의	19
제 3 절 생태여성주의	27
제 4 장 근본적 생태철학 제 유형 상호간의 논쟁	34
제 1 절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 논쟁	34
제 2 절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 논쟁	35
제 3 절 심층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 논쟁	37
제 4 절 근본적 생태철학 상호간 논쟁의 시사점	38
제 5 장 근본적 생태철학의 한계	40
제 1 절 심층생태주의의 한계	40
제 2 절 사회생태주의의 한계	43
제 3 절 생태여성주의의 한계	46
제 6 장 결론	50
참고문헌	54
<Abstract>	5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인간은 자연 안에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간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생태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혜택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사회는 지구온난화, 종(種)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등 심각한 생태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생태위기문제는 국제정치무대에서조차 비중 있는 현안이 되었다. 단적인 예가 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기후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미국의 전 부통령 앨 고어와 UN의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¹⁾가 선정된 것이다. 심지어 다자간 국가 안보 체제인 NATO²⁾에서조차 기후온난화 문제는 이제 주요의제 중에 하나다.

현대 물리학자 프리츠프 카프라는 “최근의 자연재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환경문제와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뒤엉킨 결과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해 낼 수 있다, 빈곤·자원의 부족·인구폭발이 결합되면서 생태계와 지역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³⁾

물론 생태위기가 유독 산업화 과정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한 문명의 위기나 소멸은 고대의 역사에도 있었다. 이를 테면 청동기 시대 지중해 최고 문명이었던 미노아문명이 무차별적인 산림훼손으로 멸망한 것이 그 한 예이다.⁴⁾ 그러나 인류가 생태위기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위기의식은 최근 한 세대 동안에 널리 확산된 것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기후변동

1) IPCC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약칭이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인 세계기상기구와 국제연합 환경계획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임무이다. IPCC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기상 관측을 하는 조직은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2) 정식명칭은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조약기구이다.

3) 프리츠프 카프라, 『히든 커넥션』, 김주현 옮김, 휘슬러, 2003, 284쪽

4) 존 펠린, 『숲의 서사시』, 송명규 옮김, 도서출판 다남, 2002, 53쪽

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파차우리 의장은 “IPCC가 지난해 내놓은 4차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인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가뭄과 홍수, 해수면 상승, 질병 확산 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2050년이면 현재보다 3도 가량 올라가 생물종의 20~30%가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파차우리 의장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 등 강수 패턴의 변화로 수자원 관리가 중요해 진다는 것이다. 또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전 국토의 1.2%가 침수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와 전염병 발생 등 보건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⁵⁾

당면한 생태위기는 우리 인류에게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인류사회 문명의 발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인류사회가 직면한 생태위기의 징후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관계설정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근본 인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생태위기에 대한 철학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생태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으로써 생태주의 철학의 등장은 필연적이다.

자연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본격적인 철학적 관심은 19세기 후반 서구 산업 사회의) 폐해가 심각하게 노정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진적 성격을 띤 생태철학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등장한다. 소위 근본적 생태철학이다. 근본적 생태철학은 생태위기의 진단과 대안을 현존하는 인간중심의 세계관과 정치사회지배질서, 나아가 인간의 의식과 사회문화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철학적 사조는 이른바 근본적 생태철학 트로이카, 즉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등으로 분류된다.⁶⁾ 이들은 인류가 직면

5) 한국일보, 2008. 11. 21.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0811/h2008112103015584800.htm>

한 생태위기는 현존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의 산물이며, 따라서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을 바꾸고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본적 생태철학은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 나아가 문명 그 자체의 혁명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데는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생태위기에 대한 각각의 진단과 대안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앞서 열거한 세 가지의 근본적 생태철학의 유형은 생태위기에 대한 각각의 진단과 대안에 적지 않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근본적 생태철학은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조화를 강조한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 형성된 기존의 사회체제와 질서를 전면적으로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적 발상은 필연적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계를 보인다. 이 논문은 근본적 생태철학의 탄생 배경과 의의,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근본적 생태철학'의 개념과 범주를 서술할 것이다. 생태철학 개념의 모태가 되는 생물학의 한 분야로서 '생태학' 개념의 탄생과 확장 경로 그리고 사회적 범주에서 철학적 범주까지 확대 적용되는 과정을 소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근본적 생태학의 세 유형, 즉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에 대한 각각의 핵심내용을 파악한다. 심층생태주의의 출현 배경과 원리, 그리고 그 실천 강령의 내용을 살필 것이다. 이어 사회생태주의 창시자이며 대표적인 학자인 북친이 주장하는 사회생태주의의 세 개념들, 즉 변증법적 자연주의, 호혜적 생태윤리, 역사적 진

6) 짐머만(M.E. Zimmerman)은 환경철학의 흐름을 근본적 생태철학(radical ecophilosophy), 환경윤리학(environmental ethics), 인간 중심적 개량주의 (anthropocentric reformism)로 나누고 그 가운데 '근본적 생태철학'을 다시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로 나누고 있다.(M.E. Zimmerman, *Environmental Philosoph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1993, vi - viii) 대체로 'radical'을 '급진적'으로 번역하는데, 논자는 형용사 'radical'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이미지, 즉 뿌리(root)라는 어원에 충실하여 'radical ecophilosophy'를 '급진적 생태철학'이라는 말 대신에 '근본적 생태철학'으로 사용할 것이다.

보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생태여성주의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여성운동이 어떻게 환경운동과 결합하게 되고 어떠한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지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근본적 생태철학의 상호 논쟁들을 살펴볼 것이다.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배적 세계관과 지배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동일한 관점에서 있다. 하지만 생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근본적 생태철학 사이에 각각의 생태위기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상호 비판을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에 대한 각각의 이론적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이론 모색을 위한 단서를 찾을 것이다. 각각의 이론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문제 제기를 살펴보고 그 문제제기의 타당성과 한계를 찾아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 생태철학이 주는 생태위기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해법을 우리 현실에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단서를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으로 제시된 근본적 생태철학, 즉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의 구조와 그 이론의 기초를 살펴보고 그 이론의 한계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근본적 생태철학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각각의 이론들은 지구촌 생태위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독특한 관점과 분석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그 자체의 이론적 한계와 이론의 현실적 적용에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생태위기의 현상은 전 지구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도 전 지구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생태위기의 취약성은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생태위기에 대한 대응 방식도 다르게 설

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태적으로 취약지인 경우에는 더욱 긴박한 대응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생태위기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는 곳 중의 하나가 섬이다. 섬은 대체지가 없다는 절대적 한계 때문에 섬에서의 생태위기는 곧 문명의 절멸을 의미하게 된다. 인구가 38만 명인 인도양에 있는 섬 몰디브는 1192개 섬과 26개의 산호초로 구성돼 있으며, 평균 해발이 1.5m에 불과하다. 기후변동에 관한정부간위원회(IPCC)는 2100년이 되면 몰디브 해수면이 최대 58cm 상승, 국가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⁷⁾

고립된 지역이 생태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 제주도의 생태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시급해진다. 최근 보도된 기사만 보더라도 기후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제주 지역의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 농업 등 전반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20년간 하루 8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종 삼림병해충과 열대성 과수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자리돔 성수기 어획량이 1년 전보다 절반으로 감소하는가 하면 고래 출현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겨울이 짧아지면서 한라산 극지고산식물인 돌매화나무, 시로미, 솜다리 등이 쇠퇴하고 있다.⁸⁾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후온난화 등에 의한 제주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 연구결과, 1980년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갯녹음현상⁹⁾이 2004년 마을어장 면적 약 1만 5000ha 중 30% 가까이 되는 4500ha에서 갯녹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마을어장 생산량은 2004년 약 8500톤, 2005년 7700톤, 2006년 7400톤 등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¹⁰⁾

근본적 생태철학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고찰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면한 제주지역의 생태위기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논

7) 경향신문, 2008.11.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101756085&code=970201

8) 김동주, 「기후변화대응과 제주사회」, 『2008 제주환경을 말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2008, 132쪽

9) 연안해역에 유용해조류가 녹아 없어지고, 그 자리에 무절석회조류가 착생해 번식하면서 어패류 서식환경이 나빠지는 현상으로, 전복, 소라 등의 조식성 패류 및 자리돔 등 조식성 어류자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 인터넷신문 미디어제주, 2007. 12. 7.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57>

의를 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근본적 생태철학에 관한 관련 자료의 분석과 상호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근본적 생태철학 탄생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는 생물학의 한 분야로서 탄생한 생태학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회운동과 철학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근본적 생태철학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제시하는 생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과 관련한 상호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가 제시하는 생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이후 학자들의 비판을 참조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관련 자료는 국내외 학술서적, 논문, 관련기관의 간행물, 일간지,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의 웹문서를 참고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생태학의 등장

생태학(Ecology)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영어의 ecology와 독일어 Ökologie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의 ‘사는 곳’이라는 뜻의 oikos와 ‘학문’이라는 logos의 복합어이다.

생태학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868년에 독일의 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Ernest Haeckel)인데 생물과 외적 세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¹¹⁾ 그는 생물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생물학의 한 영역으로서 생태학을 인식하고 새롭게 정의하면서 생물 각각의 종(種)들을 고립된 단위로 파악하는 대신, 그 종이 주변 환경이나 다른 종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이다.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 속의 무생물 요소들(공기, 물, 토양, 원자, 분자)과 생물 요소들(식물, 동물, 박테리아, 곰팡이) 사이의 수많은 복합적인 상호 작용들을 연구하는 과학을 생태학이라 부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생태학은 생물학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개체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관심은 인간과 사회 특히 생태계 변화와 연관이 되는, 예를 들어 도시화, 산업화, 빈부의 격차, 빈곤, 자연파괴, 기후온난화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과 연관되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생태학이란 용어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인구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와 통계학, 열역학, 게임이론, 해양학, 광물학, 생리학, 기상학, 의학, 열역학 등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에 걸쳐서 학문적 논의의 핵심적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11) 오제키 슈지, 『환경사상 키워드』, 김원식 옮김, 주)알마, 2007, 74쪽

한편 장희익은 생명의 기본단위를 '온생명'으로 설정하여 생태계에 대한 독특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현대 지구위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과 우리 인간 하나하나도 태양과 지구라는 특수한 여건과 함께 주변 생태계와 긴밀한 연계 아래서만 생명체로서 가능할 수 있게 된다.”¹²⁾는 전제 속에서 '온생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³⁾

생명이라는 것은 40억 년을 이어 온 이러한 정보적 연계와 태양과 지구 그리고 그 안에 그물과 같이 짜여진 생태계적 연계를 떠나 생각 할 수 없는 것이다. 우주인의 눈에 나타날 이러한 총체적 의미의 생명을 우리는 이 안에서 의존적 한시적 생존을 유지해 가는 하나 하나의 개체 즉 '날생명'과 구분하여 '온생명'이라 부를 수 있다. 예컨대 한 마리의 토끼나 한 그루의 참나무가 가진 생명은 날생명들인데, 이들은 모두 온생명이라고 하는 큰 틀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없으며, 오직 온생명의 한 부분으로서 이것에 의존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생태학(ecology)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인 환경운동의 개념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882년 미국의 여성 화학자 스왈로에 의해서이다. 그는 'ecology' 라는 용어를 환경과 생활을 결부시킨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를 비판하는 운동의 개념으로 쓰기 시작했다.¹⁴⁾ 한편 캐롤린 머천트는 'ecology'가 생물요소들 사이의 수많은 복합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출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추가함으로써 인간생태학으로,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자연자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제도를 분석하는 사회생태학으로 전개되었고, 그 사회 생태학의 최선봉에 근본적 생태철학이 자리잡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¹⁵⁾

부연하면 생물생태학이란 인간을 포함한 생물과 자연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인데 보존생물학이라고도 한다. 이 학문은 생물학을 포함한 자연과학의 지식을 통하여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본질과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을

12) 장희익, 「자연, 환경인가 주체인가 : 온생명론 입장에서 보는 관점」, 『온 생명에 대하여』, 통나무, 2003, 19쪽

13) 위의 책, 19쪽

14)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74쪽

15) 위의 책, 29쪽

포함한 생태계와 자연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폭넓게 파악한다. 또한 파괴된 자연 환경을 복구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인류의 삶을 모색하는 과학적 방안을 연구한다.¹⁶⁾ 인간생태학은 인간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학문으로서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이며, 개념조직 및 이론으로서의 유효성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인간생태학은 C.R. 다윈 이후의 동식물생태학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길지만, 사회현상의 실증적 연구방법으로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학자는 1920~1930년대 시카고대학교의 R.E. 파크, E.W. 버제스, R.D. 매켄지였다.¹⁷⁾ 여기에 캐롤린 머천트는 인간이 자연과 자연자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제도 분석을 사회생태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생물학의 한 분야로 출발한 생태학은 이제 생태계는 물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분석도구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근대 산업사회를 이끌어온 인간중심의 자연 지배적인 세계관에 대한 성찰을 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교통수단의 발달, 실시간으로 전 지구적인 정보의 소통이 가능한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를 분석하는 생태학적 관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생태철학은 자연생태계를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시도인 것이다. 더욱이 생태계의 위기가 곧바로 인류사회의 위기로 치닫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간과 자연을 총체적으로 성찰하는 생태철학의 탄생은 필연적이다.

제 2 절 근본적 생태철학의 탄생

근대 이후 급격하게 전개된 산업화 과정은 생태계의 위기를 누적시키고, 그 위기는 이제 인간의 생활과 인류문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태

16)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어 '생물생태학' 인용 <http://100.naver.com/100.nhn?docid=707476>

17)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어 '인간생태학' 인용 <http://100.naver.com/100.nhn?docid=129046>

위기는 필연적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생태위기가 생태철학의 모태가 된 것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파괴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와 환경복원운동은 미국의 시에라클럽¹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후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에 대한 경고 차원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데 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정책 결정, 입법, 행정, 사법, 선거 등을 통한 활동에 주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지역의 지정과 보호운동을 활발히 벌여왔고, 야생지역의 보호, 지구 생태계 및 자원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위한 활동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 등이다. 이후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태적 원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생태문제를 정책적, 제도적으로만 접근하는 정치인, 행정관료, 전통적 자연과학자나 기술공학자 등이 있다. 이들은 짐머만의 분류에 따르면 환경개량주의자(reformative environmentalism)에 해당한다.

반면에 생태계의 문제를 환경공학에 의해 계량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거나 제도적 보완장치로 해결하려는 기존의 환경운동의 시도는 생태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른바 근본적 생태철학자들이다. 이들은 생태문제를 기존의 틀 내에서 극복하려는 시도는 지금의 생태계 위기를 불러온 지배적 세계관의 오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나아가 근본적 생태철학자들은 기존의 주류 세계관과 그 세계관의 틀 내에서 개량주의적인 문제해결 방식과는 확연히 선을 긋고 새로운 세계관과 생활 방식을 제시한다.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심층생태주의는 환경개량주의가 추구하는 피상적 생태운동을 극복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이며 나아가 장기적인 생태운동을 탐구하고자 시도한다. 심층생태주의는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원론을 비판하고, 인간의 주체적 지위에 따른

18) 시에라 클럽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다. 1892년 '태평양 연안 산악지역'의 황무지 여행을 후원하려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박물학자 존 뮤어가 초대회장(1892~1914)이 되면서 자연보존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지부를 두고 여기에서 일반인들에게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을 하고 환경관련 입법을 위해 각 지역·주·연방 의회에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참조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어 '시에라 클럽' <http://100.naver.com/100.nhn?docid=707169>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소외를 극복하고 나아가 생명중심적 자아실현과 모든 생명의 평등성(biocentric equality)을 주창하는 사상이다.

환경개량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심층생태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노르웨이의 안 네스(A. Naess), 미국의 빌 드볼(B. Devall)과 조지 세션(G. Session), 프리츠프 카프라(F. Cafra), 게리 시나이더(G. Snyder)등을 들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환경개량주의는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적 세계관이나 인간관 혹은 자연관에 내재하는 모순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현상적으로 표출된 환경문제를 기술정책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려한다. 이러한 환경개량주의는 여전히 근대의 계몽주의적 노선에 입각하여 인류사회는 무한히 진보해 나간다는 믿음을 견지하면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심층생태주의는 모든 생명체에 내재적 가치를 인간과 동등하게 부여함¹⁹⁾으로써 현실 사회와 괴리된 생활 원리를 강조하고 영적 세계의 의미를 강조한다. 한편 현 체제에 의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당면 생태계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러한 심층생태주의의 영적 문화 추구하고 현실 사회를 회피하는 경향에 반발하여 등장한 것이 사회생태주의이다.

머레이 북친(M. Bookchin)에 의해서 시작된 사회생태주의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오늘날 생태위기가 인간사회 내의 위계적 지배관계가 자연에 대한 지배로 전이된 것으로 본다.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를 지배하게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가 자연스럽게 인간이 자연을 정복, 약탈,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생태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사회생태학은, 관념적 혹은 신비주의적 자연론에 빠져 있는 심층생태주의에 비하여, 보다 현실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생태위기 극복이론을 제공한다. 이후 서독의 생태사회학자인 루돌프 바로가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사회생태주의는 이론적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9) Bill Devall, George Session,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Peregrine Books, 1985, 2쪽

생태여성주의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물론 산업사회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feminism)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원래 여성주의운동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을 없애고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여성 억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운동인데 그들 중 일부가 여성주의 문제가 환경문제와 직결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당면 생태위기는 남성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며 남성 지배적 세계관과 지배 질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생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산업사회 이후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파괴행위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태학의 등장이 환경운동의 탄생 배경이다. 이후 기존의 정책적, 제도적, 기술공학적인 해결방식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생태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근본적 생태철학의 탄생을 불러온 것이다. 근본적 생태철학자들은 지금의 생태계 위기가 지배적 세계관과 지배질서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새로운 문명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 3 장 근본적 생태주의 철학의 제 유형

제 1 절 심층생태주의

1972년 노르웨이 철학자 안 네스의 논문 「표피적 그리고 심층적 생태운동」²⁰⁾에서 따온 심층생태주의는 환경개량주의가 추구하는 피상적 환경운동을 극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존의 환경보호주의 운동은 산업화된 국가들의 정치적 틀 내에서 개발 계획을 줄이거나 완화하기 위한 일만 시도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즉 기존의 환경보호주의 운동은 너무 기술적이고 자원 배분이라는 단기적 공공 정책 이슈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기존의 경제적 성장과 개발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단지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²¹⁾

물론 심층생태주의자들도 환경보호주의자들의 활동의 성과물로서 미국에서의 국가환경정책법(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과 절멸 위기의 종에 관한 법(Endangered Species Act) 같은 성공적인 법안을 제정하고, 매우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제정된 오염 및 기타 환경이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개량주의는 지구 생태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현존하는 생태계 위기의 주체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²²⁾고 비판한다.

20) Arne Naess, *The Shallow and the Deep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vol 16. 1973

21) Bill Devall,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Peregrine Books, 1985. 2쪽

22) 위의 책, 3쪽

1) 지배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

환경개량주의와는 달리 심층생태주의는 무엇보다도 생태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을 인간 중심의 지배적 세계관에서 찾는다. 데카르트 이후 서구의 계몽주의 철학은 인간과 자연을 이분화하고 자연을 인간이 설정한 어떠한 형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고, 이처럼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이 오늘날 지배적 세계관이며 이러한 세계관이 생태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²³⁾.

그리고 지배적 세계관은 17세기 과학 혁명의 산물로서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시각을 확립하는데, 즉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태양이 지구의 중심이며 관성의 법칙 등, 사물의 운동이 기계적 물리법칙에 따른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오늘날에도 산업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자연 지배의 윤리를 정당화시키면서 지속되고 있다. 심층생태주의는 많은 환경문제들의 근저에 기계론적 사고와 산업자본주의가 깔려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배적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윤리에 도전하고 있다.²⁴⁾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오늘날 지배적 세계관의 특성을, 첫째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둘째 우월한 종으로서 인간이 열등한 자연을 도구나 수단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며, 셋째 인간과 분리되어 있는 열등한 자연 역시 서로 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요소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고 그 각각도 죽어 있는 수동적 기계의 부품과 마찬가지로 뿐이므로 외적인 부품 간의 기계적인 결합 법칙을 찾아 인간이 이용하면 된다고 보는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한다.²⁵⁾

지배적 세계관은 자연이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자연이 인간에게 자원으로만 간주되고, 그런 자원은 무한정으로 풍부하게 널려있으며, 쓸모없는 자연도 과학기술을 통해 쓸모 있는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에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고자 하는 인류문명은 인구수에 맞추어서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

23)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141쪽

24) 위의 책, 100쪽

25) 한면희, 『초록문명론』, 동녘, 2006. 173-174쪽

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은 시장기능에 맡겨지며 국가는 개인의 능력이나 국가계획에 따라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거나 중앙집권적 계획 단위에 의해 과제를 풀어가는 중앙집권적 사회를 유지하고자 한다.²⁶⁾

이에 심층생태주의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는 정반대 항을 선택함으로써 생태 위기의 해법을 찾는다. 지난 3백 년 동안 산업사회를 지배해 온 기계론적 패러다임을 대신할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생태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진단하는 주류 세계관의 산물인 지배적 과학 기술을 청산하고 비지배적 과학과 생태적으로 알맞은 기술을 새롭게 조성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 지향적인 문명 창조를 주창한 것이다. 그에 따라 새로운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종교적, 심리학적, 사회정치적, 윤리적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2) 심층생태주의의 원리

심층생태주의는 기존의 주류적 세계관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자연 위의 인간이 아닌 자연 속의 인간이라는 새로운 형이상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너/나 관계와 개인/지구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둘째, 새로운 심리학²⁷⁾으로써 개인과 지구의 총체적인 어울림을 의미하는 새로운 자아의 철학을 세운다. 셋째, 세계의 발전 패러다임으로써 산업사회를 거부하고 그에 따라 광대한 땅을 야생지로 남겨 두고자 한다. 사람들은 개발된 땅을 포기하고 이 땅을 야생지로 회복시킴으로써 '미래의 원시인'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넷째, 인간 중심적 윤리보다 생태 중심적 윤리를 지지한다. 다른 생물체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를 가지며 사람들은 생태계를 정복하기보다는 그 통합성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자연에 대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인간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자연과 함께하는 과정 지향적인 신과학을 주창하고 있다.²⁸⁾ 심층생태주

26) 위의 책, 173쪽

27) 원래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작용과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인간의 정신 작용과 행동에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연관성을 밀접하게 가지고 있다고 본다.

28)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141-143 쪽

의 이론가인 빌 드블과 조지 세션은 자연 지배적 세계관과 심층생태주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²⁹⁾

〈표 1〉 지배적 세계관과 심층생태주의의 차이

지배적 세계관	심층생태주의
자연에 대한 지배	자연과의 조화
자연환경은 인간을 위한 자원임	모든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생명종은 평등함
인간 증가에 맞춘 물질적 경제적 성장	우아하고 단순한 물질적 필요(자기실현이라는 좀더 큰 목표에 부응하는 물질적 목표)
자원이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믿음	지구가 제공하는 자원은 제한적임
첨단 기술 발전을 통한 문제해결	적합한 기술과 비지배적 과학
소비주의	충분한 일과 재순환
국가적/중앙 집권적 공동체	소수 전통과 생명 지역 공동체

3) 심층생태주의의 강령

심층생태주의는 기존의 지배적 세계관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것에 대항하여 인류전체를 포괄하는 자아실현의 실체를 추구한다. 이를 ‘보편적 자아’나 ‘절대자’, ‘절대정신’, ‘우주아’로 부르곤 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 즉 동물과 식물은 물론 강과 산, 해양까지 포괄하는 단계로 확산한다. 지배적 세계관이 취한 분리주의 사유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원자론의 분리과정에서 타인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편협하고 고립된 자아(self)는 필연적으로 소외를 맛보게 되지만, 큰 자아(Self) 실현은 역으로 하나가 되는 동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통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⁰⁾ 심층생태주의는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생활 규범이자 실천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³¹⁾

29) Bill Devall, George Session, *Deep Ecology*, Peregrine Books, 69 쪽

30) 한면희, 『초록문명론』, 동녘, 2006, 177쪽

31) Bill Devall, George Session, *Deep Ecology*, Peregrine Books, 1985, 70쪽

1.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 가치들은 자연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와는 독립해 있다.

2.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3. 인간들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다.

4. 인간의 생명과 문화의 반영은 실질적으로 더 작은 인구와 양립한다.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번영은 더 작은 인구를 요구한다.

5. 현재 인간의 자연계에 대한 간섭은 과도하며, 그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6. 따라서 정책이 변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구조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발생할 상태는 현재와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7. 이데올로기 변화는 더 높은 생활수준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로 생활의 질, 내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큰 것(bigness)과 위대한 것(greatness)의 차이를 심오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8. 이상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무를 지닌다.

한편 심층생태주의의 대표적 학자의 하나로 분류되는 카프라는 지속가능한 인간 공동체³²⁾를 건설하기 위한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태계의 6개의 기본 원

32)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은 1980년대초 레스틴 브라운이 처음 도입했다. 월드워치 인스티튜트(Worldwatch Institute)의 창설자인 브라운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약속된 기회를 조금도 빼앗지 않으면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프리츠프 카프라, 『허든 커넥션』, 김주현 옮김, 휘슬러, 2003, 306쪽

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³³⁾

네트워크

자연계에는 다른 생명체내에 보금자리를 틀고 살아가는 생명계가 있다. 네트워크내의 네트워크인 것이다. 그들의 경계는 분리의 경계가 아니며 정체성의 경계이다. 모든 생명계는 서로 소통하고 경계를 넘나들며 자원을 공유한다.

순환

모든 생명체는 주변 환경에서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받아 양분을 취해 생명을 유지한다. 또한 모든 생명계는 끊임없이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생태계의 쓰레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가 아니다. 어떤 종(種)이 배출한 쓰레기가 다른 종에게는 식량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질은 생명의 그물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한다.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는 푸른 생명의 광합성작용에 의해 화학에너지로 전환되어 생태계의 순환을 촉진시킨다.

파트너십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교환은 그물처럼 얽힌 상부상조에 의해 지속된다. 생명체는 투쟁으로 지구를 차지한 것이 아니다. 상부상조의 파트너십 그리고 네트워크으로 지구를 뒤덮고 있다.

다양성

생태계는 풍요롭고 복잡한 생명의 그물을 통해 안정성과 회복력을 얻는다. 따라서 생물학적 다양성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회복력은 커진다.

역동적 균형

생태계는 끊임없이 동요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네트워크이다. 그 적응력은 시스템 전체를 역동적 균형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복합적인 피드백 고리의 산물이다. 하나의 변수가 극단까지 치닫는 경우는 없다. 모든 변수가 최적의 가치를 중심으로 오르내릴 뿐이다.

33) 위의 책, 309쪽

결론적으로 심층생태주의는 산업화에 따른 생태위기 속에서 인류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심층생태주의는 다분히 여성주의적이면서 동시에 평등주의적이다. 심층생태주의는 자유로운 사회를 전망하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지배하고 지배받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롭고 자율적인 주체로 구성되는 관계 설정을 주장한다.³⁴⁾ 그리고 이러한 대안적 체제의 실현을 위해 영성을 강조하고 금욕주의적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문화운동을 제창한다.³⁵⁾

제 2 절 사회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는 근본적 생태철학의 한 유형인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로 등장한다. 그 대표적 인물이 머레이 북친(M. Bookchin)³⁶⁾이다. 북친은 심층생태주의가 모든 생명체에서 내재적 가치를 인간과 동등하게 부여함으로써 현실 사회와 괴리된 생활 원리를 강조하고 영적세계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또한 심층생태주의는 현 체제에 의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당면 생태계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영적 문화 추구하고 현실 사회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한다.

특히 인간 이성에 대한 입장에서는 심층생태주의와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한다. 사회생태주의는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이성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한다. 여기에는 데카르트 이후 근대 이성의 역할은 순기능 일부를 포함한다. 북친은 “역사는 이성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는 내가 연대기란

34)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171쪽

35) 환경운동연합, 행정자치부, 『생태문화지도자(Eco-guide) 교재』, 환경운동연합, 26쪽

36) 북친은 1921년 뉴욕의 맨해튼에서 가난한 러시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청소년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을 계기로 일찍이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경험하였다. 이후 한때는 자율공동체주의자(Anarchism)¹⁾ 운동가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진보적 정치 참여 경력을 가지고 있다. 북친의 이러한 다양한 정치참여 경험은 자신의 철학을 구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북친은 195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환경에 관련 된 북친의 최초의 논문은 1952년에 쓰인 「음식물에 첨가된 화학 첨가제의 문제점」이다. 그 후 그는 독일 녹색당 창립에 공헌을 하고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녹색당 운동도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현재는 생태주의 연구소의 명예 소장으로서 있으면서 생태주의에 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계속하고 있다.

단어로 대체하고자 했던 단순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다. 문명은 역사의 전개가 다양하게 구체화된 것인 반면, 진보는 더 느슨한 개념으로 역사와 문명이 합리성과 자유,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 관계에서의 자의식 증가를 향해 나가는 자기 방향을 가진 행동이다”라고 주장한다.³⁷⁾

한편 사회생태주의는 오늘날 생태위기의 근본 원인을 사회 내의 위계적 지배 관계가 자연에 대한 지배로의 전이로 본다. 현대문명사회는 공고한 위계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이며 상위의 권력자가 하위의 권력자를 지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위에 점한 권력이 열의위의 대상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순리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곧 고등동물인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 또한 당연시 하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간이 자연을 무자비하게 정복, 약탈, 파괴하여 생태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사회생태주의는 관념적 혹은 신비주의적 자연론을 보이는 심층생태주의에 비하여, 보다 현실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생태위기 극복이론을 제공한다. 북친의 사회생태주의는 사유방식으로서 크게 변증법적 자연주의, 자연과 인간의 상생의 원천으로 호혜적 생태윤리, 새로운 대안 사회의 모색의 방향으로 역사적 진보주의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1) 변증법적 자연주의

변증법적 자연주의는 북친의 사회생태주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 북친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해명의 도구와 사유의 한 방식으로 서양철학의 변증법적 사유의 전통 속에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결합하여 변증법적 자연주의를 제시한다. 북친의 변증법적 자연주의가 서양철학의 변증법적 사유의 전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다음의 인용에서 잘 나타나 있다.

변증법적 이성은 인간의 정체성을 연구할 때, 한 실체가 특정 순간에 조직되는 방식뿐 아니라 현재와 다른 그 어떤 것이 되어가는 방식, 즉 발전의 방식을 모두 포착하려 한다.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속성, 부연하면 ‘A는 A가 아니다’라는

37) 북친, 『사회생태론의 철학』, 문순홍 옮김, 솔출판사, 1997, 17쪽

속성은 정체성의 본래적인 특성 그 자체라는 것이다. 사실 대립물의 통일은 형성중인 '타자'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통일이다. 이것이 헤겔이 말한 '동일자의 타자의 동일시'인 것이다.³⁸⁾

북친의 변증법적 자연주의는 서구의 전통적 변증법적 이성을 유물론과 관념론으로부터 분리시켜 자연주의적이고 생태적인 사유에 진화론적 관점을 부여한 것이다. 다음은 자연주의 개념과 변증법적 이성이 결합되는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내가 변증법적 이성을 설명하면서 자연주의란 개념을 사용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내가 말하려는 변증법적인 해석과 유물론적인 해석으로부터 구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것인데, 자연 세계 내 인간과 자연의 위치를 보다 풍요롭게 설명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나는 변증법적 이성의 포괄적 논리성을 무수히 등급화 된 연속체 내 발전적 실재란 영속적인 관점으로 정초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만일 변증법적 자연주의가 사물이나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 존재와 근거와 전제들은 단순한 운동이나 상호 연관성 이상의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연속체란 개념은 현상들의 운동이나 상호의존이란 개념보다 더 변증법적 이성에 적합한 전제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변증법이 물질과 운동이라는 19세기 물리학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이 물리학으로부터 발전이 등장하도록 프로그램 되었기 때문이다.³⁹⁾

북친은 심층생태주의자들과는 달리 '이성'은 효율성, 객관성, 윤리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호소하고 창조해왔다는 것이다. 동시에 파괴적 기술 등 이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애매한 직관에 호소하거나 신비주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⁴⁰⁾ 이는 심층생태주의가 근대이성을 생태위기를 초래한 사상적 토대라는 지적과 더불어 일부 부류가 개인 구원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이 직관과 신비주의적 신념은 이성으로 논증되지

38) 위의 책, 37쪽

39) 위의 책, 59쪽

40) 위의 책, 31쪽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종차별주의나 이미지를 조작하는 지도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⁴¹⁾

북친의 변증법적 자연주의 개념의 특징 중 하나는 자연에 대한 기존의 통념대신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 것이다. 북친은 자연을 1차 자연과 2차 자연으로 구분한다. '1차 자연'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비유기체적 세계와 더불어 끊임없이 분화하고 복잡해지는 생명체들의 진화의 누적물이라고 정의한다. '2차 자연'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그 자연과의 조응 속에서 발전한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자연, 사회적 자연, 정치적 자연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2차 자연은 위계질서, 계급, 국가, 사유재산, 경쟁적인 시장 경제 따위에 의해 특성화되고 있다고 본다.⁴²⁾ 다시 말해서 1차 자연은 자연세계의 누적적 진화, 특히 유기적 세계이면서 2차 자연과 연속적이면서 동시에 불연속적 존재라는 것이다. 2차 자연은 1차 자연의 반정립으로서 그것과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이러한 진화는 양자가 생태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자의식을 가진 '자유 자연' 또는 '대자연'으로 지양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⁴³⁾

북친이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제 문화의 산물을 자연의 연속성으로 정의한 것은 인간이 진화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사회적인 것은 결코 생태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더 나아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제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생태주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즉 "우리의 생태문제는 사회문제에서 나온 것이다."⁴⁴⁾라는 명제에 근간이 된다. 그래서 북친의 변증법적 자연주의는,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때문에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기도 하다.

2) 호혜적 생태윤리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적 윤리의식은 "인간은 자연 세계의 청지기이자 관리자이다."⁴⁵⁾라는 인식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 중심적 윤리관은 자연을

41) 위의 책, 32쪽

42) 위의 책, 164쪽

43) 위의 책, 164쪽

44) 위의 책, 166쪽

45)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117쪽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의식주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기타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상화 시킬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연 친화적인 윤리관이 생태 중심적 윤리관이다. 캐롤린 머천트는 “생태 중심적 윤리는 우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살아 있는 동식물과 함께 돌, 광물들을 비롯한 무생물 요소들을 포함하여 환경 전체는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부여받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⁶⁾

북친은 오늘날 생태위기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윤리의식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동과 정책 선택의 기초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생태윤리의 기초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생태윤리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동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자연 본래의 고유한 존재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생태윤리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필연적 행위규범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북친은 인간 생명의 근원으로서 자연을 주목했다. 특히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어떻게 생명이 있는 유기물이 생성될 수 있는가에 주목했는데 1994년 슈뢰딩거가 처음 제시한 DNA이론이 그 계기가 되었다.⁴⁷⁾ 슈뢰딩거의 DNA 이론은, 우주라는 광대한 영역에서 복합 유기물 분자의 현존은 허공에서의 공간이라는 고전적 이미지를 화학 물질을 생성하는 활성적 토대로서 공간 이미지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근원이 아주 오래전 무기물의 특수한 화학적 반응으로 탄생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래서 북친은 생명과 생명에 관련된 모든 속성이 물질 자체에 잠재되어 있고 아울러 자연 속의 다양한 개체들의 공생적 존재 방식에 주목하고 거기에서 자연사와 사회사의 존재론적 통일성을 찾으면서 생태윤리의 근거를 찾고자 했다.

우주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속성은 끊임없이 복잡한 형상으로 스스로 조직화 하는 능력이다. 이 형상들은 발전 또는 성장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기능은 불가피하게 형상들에 상관적이다. 질서 있는 우주는 과학을 가능하게 하고 그 정교한 논리를 의미 있게 하는데 이것은 기능과 유형의 상관성을 전제로 한다. 우주

46) 위의 책, 120쪽

47) 북친, 『사회생태론의 철학』, 솔출판사, 1997, 98쪽

가 우주라고 부르는 화학물질의 생성이란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발전으로서 생명에는 신진대사와 진화가 공생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정교화 된 감성을 형성한다. 최근의 자료들은 표토로 크로포트킨의 호혜적 자연주의를 종들 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포형성의 상관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적자생존'과 '생존경쟁'이 주로 언급되었다. 상이한 종류의 유기체들 간 상호 협력이 중요하며 '적자'란 생존하기 위해 다른 종들을 돕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⁴⁸⁾

또한 복친은 자연을 도덕적이든 물질적이든 필연의 영역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생태계의 다양한 종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린 마굴리스(L. Margulis)의 말을 빌려 “생명은 자기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자신의 발전 과정에 자기 방향성을 가지로 나름대로 진화의 길을 선택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연은 그 자신 독특한 형상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여나가는 실제이며, 모든 다세포 유기체의 세포 구조는 그 스스로가 공생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연도 스스로의 의지로 서로 다른 종들과 상호의존하고 진화하는 공존적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 호혜주의가 자연의 윤리적 토대이며, 호혜주의와 자유, 주관성은 인간들만의 가치이거나 관심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복친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지배 종속의 구조화가 아닌 그 어느 한 쪽도 서로 부정하지 않고 사회적인 것을 생태적인 것과 결합할 수 있는 호혜적 생태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발성, 비위계적 관계성, 그리고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사회생태주의의 원칙들에 의해 응집된 호혜주의와 자기 조직화, 자유, 주관성은 진화의 잠재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 원칙들이 자연의 자기 성찰적 목소리로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는 생태적 책임성과는 별도로 문자 그대로 이 원칙들은 우리를 제한한다. 자연은 우리가 사용하도록 존재하지 않는다.⁴⁹⁾

48) 위의 책, 98-99쪽

49) 위의 책, 106쪽

북친의 제시하는 이러한 윤리관은 자연과 동등한 위상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 설정을 이야기하는 생태 중심적 윤리관에 입각한 것이다. 이는 심층생태주의자들의 “ 1.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 가치들은 자연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와는 독립해 있다. 2.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실천 강령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3) 역사적 진보주의

북친의 사회생태주의는 생태문제 틀과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이론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류 역사가 자유와 자아의식 그리고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진보해 왔으며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사회가 상당 정도 합리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와 문명, 진보는 변증법적으로 합리적인 사회의 산물이다. 이것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변증법적 유산을 형성화해 왔다. 자유라는 유산의 존재는 “지배라는 유산”도 있음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이 지배의 유산은 비합리적인 영역에 놓여있다. 인간의 이성과 투쟁, 그리고 다양하게 성취된 자유는 잔인성과 야만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데, 이 잔인성과 야만성은 지난 수세기 동안 예측할 수 없는 발전 과정을 보여 주면서 새로운 사회의 윤곽을 제시하기도 하고 사회진화를 특징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역사 문제는 이성이 특정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한에서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에 자양분을 주는 것은 자유인가 지배인가? 나는 진보가 곧 지배에 대한 자유의 승리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⁵⁰⁾

그리고 북친은 오늘날 생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사회적 위계질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계질서가 해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가 초기자본주의 다양한 문화의 독창성을 해체하고 자본주의의 사회적 문화적 동질화 동질성이 보편화 과정 속에서 소비주의의 비도덕성을 만연시키는 체제라고 단정한다. 그는 무분별한 자원낭비를 초

50) 위의 책, 219쪽

래하고 있는 산업화와 산업 생산의 지속적 증가를 전제로 한 자유무역의 증대 및 확대 전략 등 세계화 경제 전략은 온 인류를 ‘탈출구 없는 터널’이라는 생태 위기로 밀어 넣고 있다⁵¹⁾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친은 현존하는 지배적 사회질서인 자본주의를 민중에 의한 사회혁명을 통하여 해체하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는 것이다.⁵²⁾ 그러므로 사회생태주의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과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사회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단순한 사유체계에서 보다 현실적인 참여의 사회철학으로 변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⁵³⁾.

그런 점에서 북친의 사회생태주의는 혁명적 성격을 띤다. 북친이 주장하는 역사의 진보는 현 자본주의사회만이 아니라 정치제도, 의식, 생활 패턴, 삶의 의미까지 생태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친은 사회혁명을 통해 해체된 새로운 사회질서의 대안으로 생태사회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1차 자연과 2차 자연이 새롭게 자유로운 자연으로 지향되는 자유해방적 사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진보를 위한 혁명은 민중의 참여와 자치라는 사회적 실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민중의 참여의 자치는 국가의 힘을 기르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 자신의 힘을 기르는 데 역할을 두고 있는 것이며 즉 민중중심의 정치적 생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친은 정치가 아닌 통치, 대의 민주주의, 기존 선거제도, 정당 시스템 등 기존 정치에 대한 비판과 하나의 대안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민중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생태주의의 정치모델은 주권의 위임이 아닌 양도형식의 참여 민주주의 대의원제도와 연방제 구조를 가진 소규모 직접정치를 대안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공동체는 자연 공동체에서 나오는데 자연 공동체는 자연 그 자체에 바탕을 두는 것이고 이 자연은 자유로운 생물종들의 공동체들이 진화하고 모여 사는 곳이다. 진화의 자연관이 사회에 새로운 생태윤리를 제공했듯이 참여와 공생의 자연관은 새로운 사회구성 원리, 즉 다름이 동등함의 근거가 되는 원리,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의 참여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원리를 제공해 준다. 북친은 “자연 환경과의 지속적 균형을 보장해 주는 인간 공동체 창

51) 위의 책, 275쪽

52) 위의 책, 129쪽

53) 위의 책, 217쪽

출 없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불가능하다.”⁵⁴⁾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생태주의는 심층생태주의가 전면 부정하고 있는 인간 이성에 대한 입장을 달리 한다.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산업화 이데올로기의 기반이 되는 데카르트 이후의 도구적 이성이 아닌 변증법적 이성의 전통과 성과를 변증법 자연주의 이념으로 재정립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훼손된 생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생태주의는 자연에도 인간과 동등한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 중심적 세계관과 윤리, 생태 친화적인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시하고 있다.

제 3 절 생태여성주의

생태여성주의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 여성과 자연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게 된다.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생태위기의 원인을 남성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로 보면서 남성 지배적 세계관과 지배 질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생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원래 여성주의는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을 일컫는데 189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일찍이 여성주의는 남녀는 평등하며 본질적으로 가치가 동등하다는 이념을 추구해온 운동이다. 생물학적 성(性)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부정하며 남녀평등을 지지하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불평등하게 부여된 여성의 지위·역할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여성운동이다. 이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나 관점, 세계관이나 이념이기도 하다. 여성 억압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여성해방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여성주의는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등 여러 사상이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더불어 발전했다. 1960년대부터 현대 여성주의를 지칭해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쓰이기 시작했다. 여성주

54) 위의 책, 275쪽

의가 권리와 평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를 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었다면, 여성 해방운동은 억압과 해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사회를 더욱 역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⁵⁵⁾

1) 여성주의와 생태주의 결합과정

생태여성주의는 1970년대 여성과 자연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등장한다. 프랑스 작가인 도본(d'Eaubonne)이 1974년 지구를 구하기 위한 생태혁명을 여성들이 이끌 것을 주장한 자신의 책 『페미니즘 아니면 죽음을 *Feminism or death*』에서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는 오염, 환경파괴, 그리고 인구 증가 등을 남성 문화가 만들어 낸 것으로 본다.⁵⁶⁾

그러나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의 직접적 결합, 즉 생태여성주의의 등장은 로즈마리 류터(Rosemary R. Ruether)가 1975년에 『새 여성과 새 지구』에서 “사회의 근본적 관계가 우등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을 지배하는 한 여성의 해방은 있을 수 없고 생태위기에 대한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분명해졌다.⁵⁷⁾

한편 『생태여성주의』의 공동저자인 마리아 니스와 반다나 시바는 책 서문에서 여성과 생태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는 여성주의자로서 무엇보다도 남성의 지배로부터 여성이 해방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근대화' 및 '개발' 과정과 '진보'가 자연세계 오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었다. 우리는 환경재난과 환경악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 대한 영향보다 더 컸으며, 또 어디서나 환경파괴에 먼저 반대하는 사람도 여성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환경운동가로 일하면서 우리에게 과학과 기술이 성(gender)에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며, 다른 많은 여성들과 더불어 우리는 16세기 이래의 환원주의적 근대과학이 형성한 남성과 자연 간의 착취적인 지배관계가, 근대 산업사회까지 포함하는 대부분의 가부장제 사회와 팽배한 남성과 여성 간의 착취적·억압

55)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100.naver.com/100.nhn?docid=181203>

56)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287쪽

57) 한면희, 『초록문명론』동녘, 2006, 223쪽

적 관계와 긴밀히 연관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⁵⁸⁾

마리아 니스와 반다나 시바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속의 생명이 협력과 상호보살핌, 사랑을 통해 유지되는 새로운 세계를 짜고자 새로운 우주론과 인류학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표현까지도 인간의 안녕과 행복의 진정한 원천으로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⁹⁾

2) 여성주의와 자연

여성과 환경의 만남 속에서 생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캐롤린 머천트는 자유주의(liberal), 문화적(cultural), 사회적(social), 사회주의(socialistic)로 분류한다.⁶⁰⁾ 자유주의 생태여성주의는 기존의 지배구조 내에서 새로운 법 규제를 만듦으로써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환경개량주의 목적과 맞아 떨어진다. 문화적 생태여성주의는 여성이 생명의 창조자로서 숭배를 받던 선사시대를 찬양한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세계관 안에서 17세기 이후 과학혁명이 여성적으로 묘사되는 자연을 파괴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복친의 사회생태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적이고 분권화된 공동체 사회를 재구축할 것을 구상한다. 생태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관료적 국가에 필수적인 공공-민간 이분법을 초월하려는 것이다. 사회주의 생태여성주의에서는 자연은 모든 생명의 물질적 토대이며 의식주의와 에너지가 인간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 가정한다. 생산보다는 재생산을 범주의 중심에 두는, 아직 운동이라기보다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변형이다.

그리고 캐롤린 머천트는 여성과 자연 여성운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성과 자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 왔다. 그리고 그 유대 관계는 문화와

58) 마리아 니스·반다나 시바, 『생태여성주의』, 공저 / 손덕수·이난아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0, 11쪽

59) 위의 책, 16쪽

60)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291쪽

언어, 역사를 초월하여 지속되어 왔다. 이들 간에 오랜 상호 연관성은 최근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두 가지 사회운동 -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의 초기 논쟁적인 책 『여성의 신비(Femmine Mytique, 1996)』로 상징되는 여성해방운동과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70년 지구의 날에 마침내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된 생태운동 - 에 의해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인간 평등의 관점이다. 우선 미국 사회의 여성들은 자신을 남성에 종속시키는 문화·경제적인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주의자들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환경착취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경고하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생태윤리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 운동이 지난 목표를 결합시킬 때 우리는 여성과 자연의 자원적 가치 지배에 기초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닌 재능의 충분한 표현과 환경의 유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가치 및 사회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⁶¹⁾

하지만 근본적 생태 철학의 영향 속에서 생태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을 보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형성 되었다. 하나는 여성이 자연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적극 수용하면서 생태문제 해결에 여성이 확실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 문제 극복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 생태여성주의이다.⁶²⁾ 문화적 생태여성주의는 심층생태주의의 영향 속에서 남성과는 달리 비교 문화적·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생리적·사회적 역할, 심리 때문에 자연과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여성과 자연을 해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⁶³⁾

반면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북친의 사회생태주의의 영향 속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의 건설에 있어서 생산보다는 재생산의 범주를 중심 개념으로 삼는 사회주의 생태론의 여성주의적 변형으로 평가되고 있다.⁶⁴⁾

결론적으로 생태여성주의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위기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가부장제)에 의

61) 캐롤린 머천트, 『자연의 죽음』, 전규찬 외 옮김, 도서출판 미토, 2005, 16쪽

62) 한면희, 『초록문명론』, 동녘, 2006, 225쪽

63)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296쪽

64) 위의 책, 305쪽

해 강화되고 촉진되었다고 본다. 생태위기의 본질을 기존의 지배질서가 낳은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는 심층생태주의나 사회생태주의와 동일한 관점을 취한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을 주장하는 생태주의는 여성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보살핌과 길러냄의 윤리와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것만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첩경이라고 주장하는 더 급진적인 한 부류와 다른 한편 남녀의 평등과 공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 더 급진적인 생태여성주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가 여성을 상징하는 자연지배적인 세계관을 낳았고 이것이 생태위기의 근원이라고 본다. 이 부류가 생태여성주의에서는 가장 급진적인데 대안 자체도 가부장문화의 해소 없이는 지금의 생태 파괴 진행을 멈출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상대적으로 온건한 생태여성주의는 남녀의 불평등도 사회위계질서가 낳은 불평등의 하나로써 사회위계문제와 동시에 남녀위계질서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회적 열위에 있는 남성은 여성문제와 생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대적 존재라기보다는 연대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보다 깊숙이 생태여성주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보다 다양한 유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자연에 대한 관점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환경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 생태여성주의의 유형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이념의 모색과 실천 속에서 생태여성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입장과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사실 생태여성주의는 자기 독자적 철학 체계구축이라는 영역을 갖기보다는 기존의 여성주의 운동의 전통 속에서 앞서 등장한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특히 혁명적인 세계관으로서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유형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 표는 캐롤린 머천트가 여성주의와 환경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⁶⁵⁾

65) 위의 책, 292쪽

〈표 2〉 여성주의와 환경주의

	자연	인간본성	환경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여성주의적 환경주의에 대한 이미지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 · 정신육체 이분법 · 자연의 지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적 행위자 · 개인주의 · 이기심의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그 환경이 여성을 내버려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자원 및 환경과학에서의 여성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에 의한 인간을 위한 자연의 변형 · 인간자유를 위한 지배 · 자연은 생명의 물질적 기초 의식주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양식 실천을 통한 인간본성의 창조 · 역사적으로 특수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음 · 인간의 유(類)적 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에 대한 자본주의적 통제 · 재화와 이윤추적에 대한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사회는 모든 남성과 여성들의 생산을 위해 자원을 이용함 · 자원은 노동자들이 통제 · 잉여가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극소화 가능 ·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환경연구
문화적 여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은 영적이며 인격적임 · 전통적인 과학 기술은 지배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학이 기본적인 · 인간은 성적 생식 기구 · 생물학에 의해 성이 나뉘/사회에 의해 성역할이 나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 못함 · 남성의 환경주의에는 여전히 위계가 존재 · 여성의 생식에 대한 환경적 위협화학물질 핵전쟁에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자원 모두의 가치가 인정되고 축복됨 · 생식의 자유 · 여성과 자연에 대한 포르노적 묘사에 반대 · 문화적 생태여성주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은 생명적 물질적 기초, 의식주, 에너지 · 자연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됨 · 생산과 재생산에 의한 자연의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학과 실천성, 인종, 계급, 나이로 창출된 인간 본성 · 역사적으로 특수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을 수동적이고 반응적으로 봄 · 여성의 역할을 재생산에 두며, 재생산을 범주화함 · 시스템적 접근법은 변증법적이 아니라 기계론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인간의 생산 모두 능동적임 · 생물학적, 사회적 재생산의 중요성 · 생산과 재생산사의의 변증법 · 다층적인 구조적 분석 · 변증법적 기계론적이 아닌 시스템 · 사회주의 생태여성주의

자유주의 여성주의는 17세기 이후 1960대에 이르는 여성주의 운동의 역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자연관은 외부의 힘으로 움직이는 원자로 구성 되었다고 본다. 또한 개인의 합리성이 곧 사회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바탕아래 자본주의를 지적의 경제체제로 본다. 이들은 환경문제가 급속한 개발과 적절한 규제 실패로 보고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 환경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자유주의 여성주의는 생태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환경개량주의자들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한 위치에 서있다.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는 복진의 사회생태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생태위기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입장을 수용한다.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나아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인간적이고 분권화된 공동체 사회를 구상한다. 자연은 인간의 극대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의식주와 에너지 사용 수준에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적 여성주의는 자연 그 자체가 영적이며 인격으로 본다. 그리고 생명의 창조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숭고하게 바라보고기 때문에 여성이 숭배 받던 선사시대를 찬양한다. 그들은 기계론이 갖고 있는 인식론과 존재론이 남성주의적이며 이것이 여성과 자연의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여성과 자연에 대한 일상적인 착취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 여성주의는 기존의 남성 우월주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여성 우월주의의 경향성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상호보완적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사회주의 생태론의 여성주의적 변형이다.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처럼 자연은 모든 생명의 물질적 토대이며, 인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의식주와 에너지의 원천으로 본다. 그리고 자연은 지배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이며, 자연의 갖는 생물학적 사회적 재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때문에 출산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여성의 건강한 생색을 가로막는 환경오염이나 화학제품에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

제 4 장 근본적 생태철학 제 유형 상호간의 논쟁

제 1 절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 논쟁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생태위기의 근원을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기인하고 있다는 데는 심층생태주의나 사회생태주의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생태주의의 본격적인 등장은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때문에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 간의 논쟁은 주로 사회생태주의가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특히 사회생태주의는 심층생태주의가 데카르트 이후 근대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는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인간 이성의 긍정적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물론 사회생태주의도 데카르트 이후 서구 산업화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환원주의에 입각한 도구적 이성에 대해서는 심층생태주의와 입장을 같이 하지만 고대 사상에서 태동하여 헤겔에 이르는 변증법적 이성을 생태위기를 극복하는데 주요한 사유의 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심층생태주의와 정면 대립되고 있다. 때문에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방식도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심층생태주의가 사물에 대하여 직관에 의거한 대안 추구 과정에서 빠지게 되는 신비주의적 접근 문제, 초자연, 신념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또 다른 지배층의 정치 조작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⁶⁶⁾

반면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사회생태주의가 생태적 자아에 대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면서 현실적이고 과학적 대안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단지 지루하고 낡은 마르크스주의의 아류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증법적 과정으로 설명되는 역사나

66) 북친, 「북친의 삶과 사회생태론」, 『사회생태론의 철학』, 문순홍 옮김, 숲출판사, 1997, 249-230쪽

과학을 상상하는 것은 이상화된 목적론을 선호하면서 경험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당연한 경제적 물질적 필요의 충족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적인 필요를 무시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검증 불가능한 평등주의적인 사회적 조화와 생태적 균형을 떠는 이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⁶⁷⁾

양자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인간과 자연과의 동일화를 전제로 하여 찾는 반면 문제해결의 방향에서는 극단적인 대립을 보인다. 그 이유는 심층생태주의가 인간과 자연에게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윤리에 입각 기존의 산업 사회가 낳은 문명의 이기를 부정하는 철저히 자연 순응적인 삶을 지향한다면, 사회적 생태주의는 인간 이성 특히 자연주의적 변증법적 이성에 입각하여 인간의 이성에 의한 생태위기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 사이의 논쟁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 공존에 대한 해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심층생태주의가 개별적 의지에 의해 자연 친화적인 자아실현을 생태위기 극복의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사회생태주의는 생태위기를 초래하는 사회 구조의 해체를 더 비중 있게 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감안한다면 인간의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와 분리하여 생태위기 극복이 가능한 지는 의문이다. 생태위기를 초래하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것 또한 인간과 사회를 분리하는 또 하나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인 것이다. 생태주의가 사물들 관계를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유기적 복합체로 인식하는 한 생태철학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다자간 복합체계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생태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제 2절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 논쟁

사회생태주의나 생태여성주의는 인간에 의한 자연 생태 위기의 초래가 사회구

67)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239-240쪽

조에 내에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억압구조에서 찾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생태주의가 사회구조내의 서열 구조, 가장 핵심적으로는 국가와 계급의 출현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생태여성주의는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가 인간의 자연 지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성차별이 모든 계급 제도와 인간 착취의 근원이며 나아가 자연 착취의 근원이라고 진단한다.

사회생태주의나 생태여성주의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만 상호 비판적 관점도 존재한다. 생태여성주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생태주의는 변증법적 자연주의에서 드러나듯이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계몽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⁶⁸⁾ 나아가 생태여성주의가 건네는 가장 혹독한 비판은 사회생태주의가 단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변형된 아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회생태주의가 국가 해체와 계급 해방을 주장하면서 사회구조에 질게 깔려 있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⁹⁾

반면 사회생태주의자들은 생태여성주의가 고대 여성신화의 추종이라는 신비주의적 경향성과 남성 전체를 적대시하는 지나치게 여성 중심적이고 단순화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 현존하는 생태위구나 여성 억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 간의 이러한 논쟁은 주로 사회생태주의와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와의 논쟁이다. 생태여성주의 가운데 사회적 생태여성주의는 큰 틀에서는 북친의 사회생태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사회생태주의와의 이론적 충돌은 적은 편이다. 한편 문화적 생태여성주의는 사회생태주의가 마르크스주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문화 생태여성주의의 이러한 지적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북친이 사회생태주의 핵심 개념으로 변증법적 자연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는 마르크스주의 핵심 사유체계의 하나인 변증법적 유물론에 독특한 자연주의 개념을 섞어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자본주의라는 현실 지배적인 생산양식을 부정하는데 있어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공산주의 사회를 제시했다면, 북친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가 아닌 지역 소공동체를 지향하는 아나키즘

68) 이귀우, 『생태담론과 생태여성주의』, 2000, 45쪽

69)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239쪽

전통은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확연히 길을 달리한다. 그렇다고 생태여성주의가 사회생태주의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의 사회 모델이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생태주의든 생태여성주의든 기존 사회질서와 체제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체제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여기에 남성지배적인 문화의 유산까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다.

제 3 절 심층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의 논쟁

심층생태주의는 생태위기의 근원을 인간이 자연에 대한 억압의 결과로 보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어떠한 존재론적 차이나 가치에 차이가 없다는 관점이다. 설사 인간과 자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간이 우선 되어야 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인류 역사와 사회를 지배해온 주류 세계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한다. 생태여성주의의 탄생도 이와 같은 기존의 지배적 세계관에 대한 정면 도전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며 나아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억압과 여성 차별이 연관되었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심층생태주의든 생태여성주의든 기존의 지배적 세계관의 전환만이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동일한 관점에서 서 있다.

그러나 생태여성주의는 심층생태주의가 환경문제를 풀기위해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이나 해결 방안에 대한 대안 없이 개인의 의식 변화만을 강조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생태위기 문제를 인간 의식의 변화에서만 찾는다는 것은 엄존하고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별, 그 중에서도 남성에 의한 여성의 오랜 역사적 차별이 은폐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서구 전통에서 여성을 자연의 일부 분으로 설정하여 자연과 더불어 동등하게 억압 받아온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생태위기의 근원이 되는 남성 중심주의적 관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⁷⁰⁾

70) 이귀우, 「생태담론과 생태여성주의」, 2000. 45쪽

그리고 심층생태주의자들의 인간 중심주의 비판이 남성 중심주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자연을 지배하는데 사용되는 과학과 기술을 창출하고 통제 한 것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생태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가부장제의 역할에 대한 분석 속에서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⁷¹⁾

심층생태주의나 생태여성주의 모두 기존의 지배적 세계관에 대한 정면 도전과 현존하는 문명의 유산을 전면 거부하는 데는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생태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안에서 대립하는 것은 양쪽 입장 모두 현실 회피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다. 심층생태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탈사회적인 실천 대안이나 문화적 생태여성주의가 주창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새로운 이분법 혹은 여성 중심사회로 알려진 선사시대에 대한 동경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사회, 자연과 대립하는 사회구조,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팽창과 성장 중심적 시장경제에서 야기되는 여러 유형의 생태과괴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제 4 절 근본적 생태철학 제 유형 상호간의 논쟁의 시사점

근본적 생태철학은 생태위기의 근원을 자연에 대한 인간 지배를 정당화해온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기인하고 있다는 진단과, 현대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나 문화에 대하여 정면으로 등을 돌리려 한다는 대안 제시에는 모두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는 각각 생태위기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구체적 문제로 들어가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근본적 생태철학이 현실 생태위기 문제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고 단조롭게 현실 부정적인 입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여성에게서 남성 전체가 악이 아닌 것처럼 인류문명의 역사가 전부 부정될 만한 무가치한 것이 아니

71)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167쪽

다. 무관심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자연에 손끝 하나 대지 않는 것을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근본적 생태철학의 이러한 극단적인 관점은 곧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 대안의 현실성이나 그 대안을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근본적 생태철학 제 유형들이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5 장 근본적 생태철학의 한계

근본적 생태철학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은 뚜렷한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제 1 절 심층생태주의의 한계

심층생태주의가 근본적 생태철학 탄생의 모태가 되다보니까 동시에 비판의 대상에서도 그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다. 캐롤린 머천트(2005)는 『레디컬 에콜로지』에서 다음과 같이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여러 비판들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생물권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 자체가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같이 인간의 사회·정치적 범주를 자연에 투사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시하고 있다 것이다.

또 많은 심층생태주의자들이 생태계 위기 문제의 근원을 인구가 너무 많은 데 있다는 멜서스의 전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심층생태주의자들은 과잉 인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아나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는 인간혐오주의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둘째, 심층생태주의가 사회 경제적, 과학적 순진성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의 가치 반영과 행동의 열쇠로서 문화를 이상화한다는 것이다. 카프라가 비판하는 기계론적 세계관 만큼이나 시스템 이론도 생태적 관계를 과학이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기능으로써 설명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환원적이다.

셋째, 주로 생태여성주의로부터의 비판인데, 심층생태주의가 가부장적 자본주의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소개했지만 역사적으로 자연을 지

배하는데 사용되는 과학과 기술을 창출하고 통제하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생태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가부장제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이다.⁷²⁾ 인간과 자연의 억압적인 관계만을 부각시키는 탓에 생태위기를 불러온 사회구조,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성장과 팽창일변도의 권력구조, 가부장적 문화 등 인간사회 내에 존재하는 억압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홀히 함으로써 현실도피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 때문에 심층생태주의는 생태위기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캐롤린 머천트의 이러한 비판에는 심층생태주의 일면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점이 있다. 그 예로 캐롤린 머천트가 “많은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생태계 위기 문제의 근원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 있다는 멜서스의 전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극소수 활동가들의 발언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남성 일반에게 생태위기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비판이 여지가 많은데 생태여성주의가 그것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면회가 지적하는 심층생태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이론적 근거이다. 자연에 대한 내재적 가치론은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기존 주류 세계관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자연 지배를 정당화했던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 분리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설사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실 원천적으로 인간의 지적, 실천적 관심에 매개되지 않은 자연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에서 주체인 인간이 갖는 내재적 가치가 대상으로 설정된 자연에 그대로 전이된 것은 결국 심층생태주의가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유산을 답습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한면회는 심층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동등한 목적적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이나 채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수조건인 자연으로부터 먹거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처지에 빠지게 된

72) 캐롤린 머천트/허남혁, 『레디컬 에콜로지』 이후, 2007, 164-165쪽

다는 것이다. 물론 심층생태주의가 인간과 자연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자연 존중에 대한 선명한 주장을 내세웠다는 강점을 갖지만 그 선명성이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과 괴리됨으로써 그 실천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결국 심층생태주의가 생태중심의 문명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곧 자연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명해체와 반인본주의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심층생태주의가 주창하는 자연중심성이 자칫 인본주의에 반하는, 그래서 결국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령 어스퍼스트의 경우처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빈곤과 기아 문제에 대해 굶어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적정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적정한 수의 인구가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지만 자칫 이러한 관점이 결국은 제3세계 빈곤국가의 빈곤층의 일방적 희생으로 귀결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⁷³⁾ 이는 오늘날 생태위기의 원인을 인간 일반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제3세계 국민들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생태주의가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주류 세계관과 다를 바가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한면회의 지적은 그야말로 근본적 생태철학에서 비판하는 전형적인 인간 중심적 윤리관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구승희는 심층생태주의자들이 자연에 초자연적인 것을 부여함으로써 과학적 사유보다는 유사-종교적 믿음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을 범신론적인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연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 속에서 인간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 속에서 원시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정면 거부하고 휴머니즘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인간 멸시의 유사-종교라고 극단적인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⁷⁴⁾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비논리적인 감정적 비판이라는 역공을 받기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심층생태주의가 설사 이론적 체계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심층생태주의가 지향하는 세계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창출함으로써 자연 파괴적인 인간

73) 한면희, 『초록문명론』, 동녘, 2006, 184-185쪽

74)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105쪽

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인간형을 추구하고자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윤용택은 심층생태주의자들이 생태위기의 대안으로써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하는데, 이는 어떤 새로운 사조의 등장인 '사상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누적적 변화과정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가는데 있어 생태계 속으로 인간을 해체시키는 생태중심주의를 택하기보다는 '확장된 인간중심주의(extended anthropocentrism)'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생태 중심적 사고를 일부 빌려와 인간 중심주의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⁷⁵⁾ 이러한 주장은 심층생태주의적 이상과 인간중심적 사회의 현실을 조화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본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환경개량주의의 변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심층생태주의는 인간이 자연에 행하는 파괴적 기능만을 강조하다보니 자연계 속에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생각은 창조를 낳는다. 그리고 창조적 산물로서 문화와 문명은 일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배를 형성하여 인간이 인간을 억압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심층생태주의가 인정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면 인간이 스스로 자연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그 노력의 산물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러한 자기모순 때문에 심층생태주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만을 질책하는 것에 커다란 지적 자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제 2 절 사회생태주의의 한계

심층생태주의만큼 북친의 사회생태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도 다양한 측면에서

75) 윤용택, 「환경철학의 한 대안으로서 확장된 인간중심주의-카프라 대한 북친의 비판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5집, 대동철학회, 1999, 21쪽

제기되고 있다. 한면희는 우선 북친의 관점은 서양인으로서 서양인의 테두리 안에서 사고함으로써 서양적 사고와 서양적 전통에서만 문제해결의 단서를 찾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첫째, 사회생태주의가 동양사상을 존중하는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비판에 매몰된 나머지 지나치게 동양사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친의 서양 중심적 사상 배경 때문인데 동양 사상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연 친화적인 관습이나 문화 등에 대한 무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서구중심 사상 즉 도구적·분석적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곧바로 비합리적 신비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사회생태주의는 환경문제 발생의 원인을 인간사회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인간사회의 내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다보니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한 사회구조문제 해결 이전에 현실적인 생태위기 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북친의 사회생태주의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는 아나키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선한 존재일 때만이 가능한 이상론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⁷⁶⁾ 국가와 권력에 반대로 자유를 추구하는 아나키즘은 한때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유력한 대안세력으로 등장했으나, 권력이 부여하는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성향으로 차츰 세력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사회생태주의에 대한 한면희의 비판은 자연이 갖고 있는 자기 복원성 등 일정 정도 북친의 주장에 부합되는 생태계의 속성을 간과함으로써 결국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영준은 사회생태주의가 “인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을 너무 계몽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생태공동체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이 가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⁷⁷⁾

권정임은 북친의 사회생태주의가 “자연주의적 문제들⁷⁸⁾의 이론내재적 한계로

76) 한면희, 『초록문명론』, 동녘 2006, 207-209쪽

77) 방영준, 『사회생태주의의 윤리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0, 306쪽

78) 권정임은 북친의 철학이 “자연의 자기의식적 본질”로 규정하는 포이에르바흐의 자연주의적인 철학과 놀라운 만큼 유사한 이론적 구조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정임, 『현대 생태사회론』

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를 들어 그에게서 환원주의적 사회의 반생태적 원인이 자신의 진정한 자연적 본성으로부터 일탈된 인간 사이의 지배관계로 환원되는 것에 상응하게, 그는 생산의 물질적 및 에너지의 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이에 입각한 대안 마련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자연의 본질을 상보성으로 간주함에 의해 지구상의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인간과 타 생명체의 모순 등에 대해서는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79)

그러나 권정임의 비판은 최근 린 마굴리스가 찾아낸 생태계의 ‘공생의 진화’⁸⁰⁾의 성과를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타 생명체의 모순은 지구상의 전체 생태계의 공생과 조화의 속성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친은 변증법적 자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연과 인간에게 동등한 자유의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의 오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 이성의 발전 특히 변증법적 사유 방식의 역동성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친이 자연에게 부여한 자유 속성을 인정하더라도 자연은 진화의 속성이 인간 자유의 진화의 속성과 동일하지 않다. 북친이 인정했듯이 인간은 자연의 여러 종들과 다른 이성적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호작용이나 변증법적 운동은 인간의 사유체계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의 문화를 자연의 이차적 존재로 규정하여 인간 이성의 진화와 인류문화의 성과를 과도하게 자연의 파생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친의 사회생태주의는, 지금 인류사회가 직면한 생태위기는 사회적 산물이며 그 사회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지배와 피지배, 인간 사이의 서열 구조 문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생태주의의 해법은 그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물론 사회적 위계질서가 파괴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강고한 현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생태 사회의 건설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생태사회 구상은 이상주의적인 논

과 생태철학」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17쪽

79) 권정임, 「현대 생태사회론과 생태철학」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18쪽

80) 린 마굴리스, 도리언 세이건, 『생명이란 무엇인가』, 황현숙 옮김, 지호, 2004, 8쪽

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현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은 현 체제의 기득권 세력은 물론 일반 대중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보편적 다수를 설득했다고 해도 과연 정당 같은 정치 조직 없이 체제 자체를 평화적으로 해체할 권력이 창출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창출되더라도 그 조직이 복권이 거부하는 위계 구조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한편 복권이 현존하는 위계질서와 문명의 이기들, 법·국가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법이나 국가체제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의 활동 속에서 진화한 측면도 있다. 법과 국가의 탄생은 개인의 인권 신장과 보호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봉건적 해체와 국민국가의 탄생 그리고 국민 국가에 의한 보통 교육의 실시 이후 등장하는 사회복지체제는 분명 인류의 역사적 진보의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복권은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를 인간 이성에 의해 그리고 새로운 사회구조의 창출로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 역사적 낙관주의자임을 자처한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의 변화, 특히 비가역적 생태계 파괴의 현실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연료로 소모되어 버린 나무나 기후온난화로 녹아내리는 빙산 등은 인위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극히 미세한 부분 관리적 차원에서 복원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원상회복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자연의 섭리다. 때문에 복권의 사회생태주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고 생태계 복원에 대한 낭만적 관점의 소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 3 절 생태여성주의의 한계

생태위기 문제를 남성 지배적인 문명사적 폐해로 바라보는 생태여성주의의 등장은 생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결과정에 여성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생태여성주의에 대하여 근본생태주의는 물론 기존의 여성주의운동의 주체들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캐롤린 머천트는 여성주의자들의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수잔 프렌티스는 생태여성주의가 모든 생명이 지니고 있는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면서도 “여성과 남성이 (...) 문화와 사회화를 초월하는 본질적 인간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남성들이 지구에 하는 일은 나쁜 것이며, 여성들이 하는 일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성들이 자연과 정치에 대하여 갖는 이러한 특수한 관계는 남성들 또한 자연에 대한 보살핌의 윤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둘째, 생태여성주의는 왜 자본주의가 자연을 지배하는지를 설명하는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자본주의만의 특수한 역사, 논리, 그리고 투쟁을 담고 있는 과정으로서 그에 대해 심각하게 도달하지 않고 있다. 생태여성주의가 이러한 분석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생태여성주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빈곤과 인종주의라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⁸¹⁾

캐롤린 머천트의 이러한 비판은 생태여성주의가 출현하는 과정에서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태여성주의는 그 자체가 독자적 사상이나 철학으로 탄생했다기보다는 여성주의 운동의 새로운 유파로 파생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생태여성주의의 자기 완결적인 철학적 체계를 갖추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주의운동이 제 3세계 빈곤과 인종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서구 중심적인 관점이다. 설사 여성주의 운동의 전통과 중심이 서구에 있다 하더라도 제 3세계 여성들의 활발한 생태 친화적인 활동은 적지 않았다.⁸²⁾

이귀우는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자연을 신성시 하거나 여성의 경험을 신비화하여 여신 종교 부활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성주의는 물질과 정신을 다시 분리하는 이원론을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생태여성주의의 정치적 세력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에 더 가깝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주장

81)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300쪽

82)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생태여성주의』, 손덕수·이난아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00, 26쪽

은 다시 남성/여성 이원론을 답습하는 것이며 남성을 인간 생존의 책임 관계망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억압받은 제 3세계 여성이 우월하다는 백인 여성들의 관점도 본질적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⁸³⁾ 생태여성주의가 남성 중심주의를 여성 중심주의로 역전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면희는 생태여성주의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화적 생태여성주의에서 남성과 여성,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을 역전시켜 수용함으로써 대비적이면서 적대적인 가부장적 유산을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나치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연주의에 역행하는 성문화까지 장려하고 고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연의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둘째, 여성의 가치를 적극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칫 남성의 가치 일반을 매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도 인간인 한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생태여성주의가 서구적 기반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서양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서구 전통이외의 보다 많은 전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여성과 남성 간에 분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보적 역할을 수용하여 조화와 균형을 꾀하는 것이다. 넷째, 생태여성주의는 구체적인 여성주의 이상이 반영되는 문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⁸⁴⁾

그러나 생태여성주의가 서양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제 3세계에서의 다양하고 활발한 생태여성주의의 실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승희는 “생태계 위기를 포함하여 현대의 모든 위기가 ‘여성’, ‘자연’, ‘제3세계’의 식민지화에 기인하는 것이며, 오직 이런 토양 위에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문명이 주도적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이라는 생태여성주의의 주장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는 하나 논증적이지는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생태여성주의가 현대 여성주의운동 강령 수준을 넘어, 우리 시대의 주류 생태학의 담론이 되려면 생태여성주의 내부의 비일관성을 극복하고,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등 근본적 생태철학의

83) 이귀우, 「생태담론과 생태여성주의」 『새한영어영문학』, 제 43권 1호, 2000, 48쪽

84) 한면희, 『초록문명론』, 동녘, 2006, 234-235쪽

다양한 목소리와 대결하기보다는 이들을 결합하여 생태·사회 이론의 역동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하고 있다.⁸⁵⁾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생태여성주의도 구체적 현실서의 해체와 새로운 생태 사회의 건설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생태여성주의의 생태사회 구상은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생태여성주의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새로운 사유의 틀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정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태여성주의가 그동안 역사적 여성주의 운동의 전통 속에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만큼 이론과 사상의 정교한 체계보다는 여성주의운동의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여성주의 운동이든 생태여성주의 이념이든 이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 이외의 주체 즉 남성과 사회적 약자들과의 운동적 연대 이상의 현실적 이념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85)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110-111쪽

제 6 장 결 론

오늘날 인류사회가 직면한 생태위기는 이제 전 지구적인 공동 현안이 되었다. 당면한 생태위기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철학적 사조들이 등장하였다. 생태위기가 생태철학의 모태가 된 것이다. 이들 중에는 기존의 지배적 세계관을 정면 부정하는 급진적 경향을 띤 근본적 생태철학이 있다. 이른바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가 그것이다. 그 각각의 이론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관점과 분석을 내놓으면서 지금 인류가 직면한 생태위기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한편 그 자체의 이론적 한계와 이론의 현실적 적용에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심층생태주의는 사람이든 자연이든 지배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고 주체적인 자연과 함께 구성되는 존재로 바라보면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생태위기는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의 산물로 본다. 드볼과 세션은 그 대안으로 심층생태주의의 8개항을 실천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층생태주의는 이후 또 다른 근본적 생태철학의 유형들인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의 태동에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심층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억압적 관계만을 부각시키는 탓에 생태 위기를 불러온 사회구조,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성장과 팽창 일변도의 권력구조, 가부장적 문화 등 인간사회 내에 존재하는 억압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실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심층생태주의는 생태위기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심층생태주의는 인간이 자연에 행하는 파괴적 기능만을 강조하다보니 자연계 속에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이

다. 생각은 창조를 낳고 창조적 산물로서 문화와 문명은 일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억압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심층생태주의가 인정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면 인간이 스스로 자연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그 노력의 산물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러한 자기모순 때문에 심층생태주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만을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지적 자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사회생태주의는 오늘날 생태위기 문제를 사회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특히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회 위계구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생태위기의 극복은 사회 모든 영역에 확장되어온 모든 사회적 위계질서의 해체라고 주장한다.

사회생태주의는 심층생태주의와는 달리 인간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데카르트 이후의 자연 지배적인 이성이 아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훼손된 생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생태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도 인간과 동등한 자유의지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 중심적 세계관과 윤리, 생태 친화적인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시한다. 그러나 북친이 자연에게 부여한 자유의지적 자연 진화의 속성은 인간의 자유의지적 진화의 속성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우주적 생태계 안에서 인간만이 가장 독특한 이성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다. 그러므로 북친이 인간과 인간의 문화를 자연의 이차적 존재로 규정하여 과도하게 자연의 파생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회생태주의는 현실서의 해체와 새로운 생태사회의 건설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상주의적인 논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생태주의는 동양사상을 곧바로 비합리적 신비주의로 단정하는 설부른 선입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연 생태계의 변화, 특히 비가역적 생태계 파괴의 현실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북친의 사회생태주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고 생태계 복원에 대한 낭만적 관점의 소유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생태여성주의는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가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로 이어지고

있다고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성차별이 모든 계급 제도와 인간 착취의 근원이며 나아가 자연 착취의 근원이라고 진단한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위기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남성의 여성지배(가부장제)를 통해 강화되고 촉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생태위기의 본질을 기존의 지배질서가 낳은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는 심층생태주의나 사회생태주의와 동일한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을 주장하는 생태주의는 여성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보살핌과 길러냄 윤리와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것만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첩경이라고 주장을 하는 더 급진적인 부류가 있다.

한편 생태여성주의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새로운 사유의 틀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대 여성신화의 추종이라는 신비주의와 남성 전체를 적대시하는 지나치게 여성 중심적이고 단순화된 이분법적 사고방식도 보이는데 이러한 관점은 생태위기나 여성 억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생태여성주의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생태여성주의가 그간의 역사적 여성주의 운동의 전통 속에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만큼 이론과 사상의 정교한 체계보다는 여성주의운동의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 운동이든 생태여성주의 이념이든 이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대안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 이외의 주체, 즉 남성과 사회적 약자들과의 운동적 연대 이상의 현실적 이념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 생태철학은 생태위기의 근원을 인간 중심적 주류 세계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과 문명의 이기나 문화에 대하여 정면으로 등을 돌리려 한다는 면에서는 모두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위기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서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근본 생태철학이 생태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에 너무 성급하고 단조롭게 현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데 기인한다. 근본적 생태철학의 이러한 극단적인 관점은 곧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현실성이나 구체적 실행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끝으로 생태위기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에 급진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소위 근본적 생태철학, 즉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는 각각 이론상의 한계와 현실적 실천 대안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길을 열어 가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근본적 생태철학은 개량주의적 환경론에 대하여 자기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환경운동의 심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정임, 「현대 생태사회론과 생태철학」, 『시대와 철학』제17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 고창택, 『환경철학에서 생태정책까지』, 이학사, 2005
-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 김명식 외, 「환경철학의 역사와 연구 동향」, 『과학 사상』 제 50 호, 범양사, 2005
-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김은령, 에코리브르, 2003
- 린 마굴리스, 도리언 세이건, 『생명이란 무엇인가』, 황현숙옮김, 지호, 2004
- 마리아 니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Ecofeminism*』, 손덕수·이난아, 창작과 비평사, 2000
-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도서출판 아르케, 2006
- 방연준, 『사회생태주의의 윤리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0
- 머레이 북친, 『사회생태론의 철학』, 문순홍 옮김, 솔출판사, 1997
- 안건훈, 『한국에서의 환경철학』, 2004
- 윤용택, 「환경철학의 한 대안으로서 확장된 인간중심주의 - 카프라에 대한 북친의 비판을 중심으로」, 『대동철학』제5집, 대동철학회, 1999
- 윤용택, 「환경철학에서 확장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고찰」, 『범한철학』제38집, 범한철학회, 2005
- 오제키 슈지외/ 김원식, 『환경사상 키워드』, (주)알마, 2007
- 이귀우, 「생태담론과 생태여성주의」, 『새한영어영문학』제 43권 1호, 2000
- 자넷 빌 등, 『에코파시즘』, 김상영 옮김, 책으로만나는세상, 2003
- 장희익, 『삶과 온생명』, 솔출판사, 1998
- 장희익 외 / 과학사상연구회 편, 「자연, 환경인가 주체인가 : 온생명론 입장에서 보는 관점」, 『온 생명에 대하여』, 통나무, 2003
- 조용익, 유영개, 정철, 『환경철학의 이해』, 신광문화사, 2004
- 존 펠린, 『숲의 서사시』, 송명규 옮김, 도서출판 다남, 2002

캐롤린 머천트, 『레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캐롤린 머천트, 『자연의 죽음』, 전규찬의 옮김, 도서출판 미토, 2005
프라초프 카프라 지음, 『히든 커넥션』, 김주현 옮김, 휘슬러, 2003
한국환경철학회, 『생태문화와 철학』, 도서출판 금정, 2007
한면희, 『초록문명론』, 동녘, 2006
헬레나 노르베리외, 『진보의 미래』, 홍수원 옮김, 두레, 2006

Bill Devall, George Session,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Peregrine Books, 1985

Bookchin, Murray, *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Black Rose Book, 1995

Naess Arne, *The Shallow and the Deep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vol 16. 1973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f Radical Ecophilosophy

- Focusing on Deep Ecology, Social Ecology, and Ecofeminism -

Hee-Jong Jin

These days we are faced with serious ecological dangers, such as global warming, constant reduction of species, and soil and underground water pollution. These ecological dangers demand human beings to have comprehensive and essential reflections on natur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s in our civilizations.

In the late 20th century appeared radical ecophilosophies in an effort to deal with these problems. Among them are deep ecology, social ecology, and ecofeminism.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conduct research on the structure and the basic theory of these three philosophies, which present philosophical diagnosis of and solutions to ecological dangers.

These radical ecophilosophies criticize the human centered world view to justify human's domination of nature and place emphasis on co-existence of and harmony between humans and nature. According to these philosophies the ecological dangers we are faced with are considered the products of existing ruling ideology and social system. So these philosophies maintain that to overcome today's ecological dangers our view of world should be changed and social systems deconstructed. However these radical ideas have no choice but to have trouble presenting methods to put them in

concrete practice.

Deep ecology makes an attempt to overcome superficial ecological movement of reformative environmentalism and search for wider range and more radical and long term plan for ecological movement. Deep ecology is a thought that criticizes the dichotomy between human being and nature, gives up human-centered view, gets over human's domination of nature and advocates life-centered self-realization and biocentric equality.

On the other hand, deep ecology is criticized for not being so serious about the social structure causing ecological dangers and depressing structure existing in human societies. For this reason deep ecology fails to be practical alternative to deal with present ecological dangers, even though it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blaming human arrogance that he can govern the nature.

Social Ecology thinks that current ecological dangers have been caused by hierarchical system in human societies that human beings rule and oppress others. In this respect Social Ecology argues that all the social hierarchism should be disintegrated in order to overcome present ecological dangers. In its view Social Ecology can be seen as radical.

A scientist, Murray Bookchin representing Social Ecology, presents a model of ecological society as an alternative of social hierarchism, which means a liberated society in which the primary nature and the secondary one go into a new and harmonious nature.

Unlike Deep Ecology, Social Ecology place emphasis on the role of human reason. It presents a view that human reason can help restore devastated ecosystem. However, it is criticized for being too much ideal and overestimating human abilities, for it fails to provide details about the process of constructing ecological society.

Ecofeminism insists that male's dominance over female and

human's dominance over nature go together. Sexual discrimination is the origin of not only all caste systems and human exploitation, but also natural exploitation.

Ecofeminists emphasize that ecologism needs to go together with female's ethics, caring and raising, coming from their experience. However some of ecofeminists show only a simple dichotomy between male and female, which is too hostile to male and female-centered. For this reason it is not easy for ecofeminism to present a practical alternative to figure out the matter of ecological dangers and oppression over female.

In conclusion, those three radical ecophilosophies raise a direct question about facilities of civilization and culture and have an identical view that the main ecological dangers are caused by human-centered world view. Nevertheless they have distinct differences when it comes to specific matter over diagnosis and solution to ecological crisis. This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se radical philosophies diagnose ecological crisis in haste and give too simple alternatives and choose too negative stance. These extreme view is a major reason that radical ecophilosophies fail to present a concrete and practical strategy to build a new ecological society. Nonetheless radical ecophilosophies give us a chance to reflect on reformative environmentalism movement and there are also implications that human beings should be in pursuit of harmonious and ecological lives between humans and nature.